

보도시점 2026. 5. 29.(금) 12:00
(2026. 5. 30.(토) 조간) 배포 2026. 5. 29.(금) 09:00

[연구행정 혁신⁺-②]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줄인다

- 연구현장에서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제출받아 온 2,171개 서식을 과감히 삭제·전산화하여,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관리
- 연간 약 40만 개·2만 시간의 행정서식 작성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9일(금) 개최된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혁신방안(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구자가 연구행정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R&D 행정서식을 대폭 정비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난해 11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방안은 동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국가R&D 표준서식(58개)이 있음에도 각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추가 서식을 제출 받아오음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7개 전문기관과 '국가R&D 행정서식 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난 12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총 2,171개의 서식이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행정에 꼭 필요한 서식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

검토 결과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제출 받아온 단순 참고용·중복 서식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는 전산화하며, 나머지는 허용 서식 154개(표준서식 67개, 비표준서식 87개)로 정비하는 등 90% 이상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전산화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개편하여 단순 확인·자가진단 서식을 IRIS 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등 연구자 동의 절차 15개도 전자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IRIS와 타 기관 행정시스템을 추가 연계하여, 연구자의 자격·증빙 등 서식 49개를 자동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7월부터 IRIS에 공고되는 모든 국가R&D 사업의 전 과정(공고접수, 평가, 협약, 과제수행, 사후관리 등)에서 154개 허용 서식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식 첨부 방식을 관리한다. 연구행정 서식이 확대되지 않도록 허용 서식 이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가 필요할 때도 총량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범부처 연구행정 서식 정비 결과 >

행정서식 현황(총 2,171개)		간소화 이후		
표준서식	비표준서식	유지(154개)	전산화(65개)	폐지
58개	2,113개	67개(표준서식)	16개(전자적 동의)	1,952개
		87개(비표준서식)	49개(시스템 연계)	

< 국가R&D 행정서식 간소화 전후 비교도 >

-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필수 표준서식 8개를 중심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표준서식을 우선 사용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비표준서식을 활용

* IRIS R&D업무포털 메뉴(공고접수/평가/협약/과제수행/사후관리) 기준

- 첨부 가능한 비표준서식 수를 단계별 2개로 제한(단, 공고접수 단계는 3개)

	공고접수	평가	협약	과제수행	사후관리	
기존	2,171개 서식 중 전문기관 편이에 따라 제출 (사업당 최대 95개 서식 수집 사업 존재)					
개선	필수	표준서식 1개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서식 0개	표준서식 2개 (사업 협약서, 연구비 사용신청서)	표준서식 3개 (단계·연차,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2개 (성과활용보고서, 연구비 실적보고서)
	선택	공고접수 표준서식 선택 활용(~13개) + 비표준서식 최대 3개	평가 표준서식 선택 활용(~4개) + 비표준서식 최대 2개	협약 표준서식 선택 활용(~11개) + 비표준서식 최대 2개	과제수행 표준서식 선택 활용(~6개) + 비표준서식 최대 2개	사후관리 표준서식 선택 활용(~10개) + 비표준서식 최대 2개
	※ 필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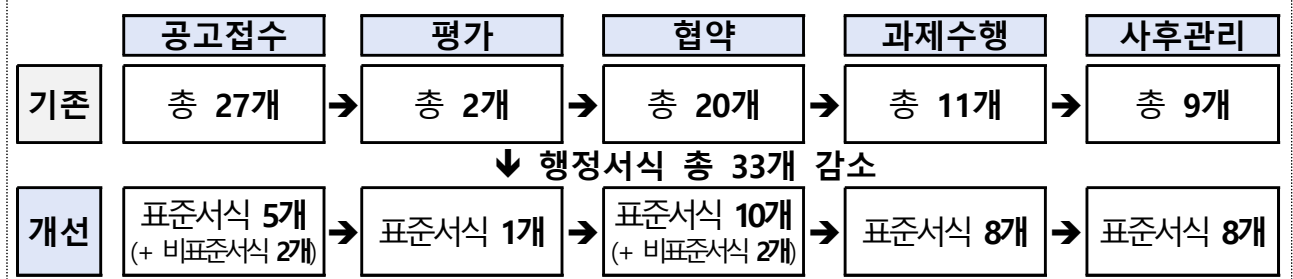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부터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를 통해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주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2028년까지 연구과제(IRIS), 연구비(Ezbaro·RCMS), 연구정보(NTIS) 등 4대 연구지원시스템을 IRIS 중심으로 통합하고, AI로 평가위원을 추천하거나 챗봇으로 규정을 해석해주는 등 AI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40만 개의 행정서식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 이상의 연구행정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단순히 서식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식의 작성·제출·관리 방식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연간 약 40만 개*, 최소 2만 시간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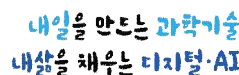
* 국가R&D 세부과제 수(60,696개, '24) × 사업당 평균 요구서식 수(7.0개, TF 조사) × 감소율
 ** 1개 행정서식당 작성·발급·첨부에 걸리는 최소시간을 3분으로 가정

< 실제 사업 예시 : 기업 관련 OO 사업 간소화 전후 비교 >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며, 연구자가 서식 작성과 증빙 첨부에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서식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제도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도경 (044-202-6950)
		담당자	사무관	최원영 (044-202-6954)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시훈 (044-202-6960)
		담당자	사무관	장호원 (044-202-6963)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시스템 개선

연구행정 혁신+ 제2편

서류는 줄이고, 행정은 더 쉽고 똑똑하게

01 행정서식 대폭 간소화

AS-IS 연구자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식 2,171개
과도한 비표준 서식으로 연구자 행정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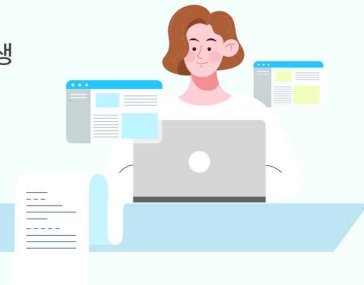
TO-BE 154개로 통합·간소화
불필요·중복 서식 정비 및 비표준서식
총량제 도입으로 연구자 제출 부담 완화



02 행정서식 전산화·시스템 연계 확대

AS-IS 수기 작성·증빙 발급·직접 첨부
타 시스템 발급 서류 직접 첨부 및 수기 작성 후 스캔하는 등 번거로움 발생

TO-BE 전자 동의·자동 확인·자동 제출
전산화 서식 확대 및 시스템 연계로 서류 자동 제출 지원



03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개편

AS-IS 연구지원시스템* 분산 운영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RCM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부처·기능별 분산된 연구지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

TO-BE 4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AI 서비스 확대
시스템 통합 및 AI기반 행정지원 서비스 확대로
연구자 중심 R&D시스템 재편



기대효과

1

**반복·중복
서류 제출 최소화**

연간 약 40만개
행정서식 부담 완화

2

**연구행정
처리 시간·절차 단축**

최소 2만 시간 이상
연구행정 시간 절감 기대

3

**하나의 시스템 중심
AI기반 연구환경 구현**

연구자는 행정보다
연구에 더 집중